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생물학에서 게노스와 에이도스의 쓰임

조 대 호 (연세대학교)

【요약문】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그 도구적, 방법론적 성격 때문에 보통 “organon”이라고 불린다. 많은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자들은, 그의 논리학 이론들이 그가 손댄 여러 분야의 연구에서 정말 도구 구실을 하는지를 밝히는 데 몰두해 왔다. 지난 30년 넘는 세월 동안 아리스토텔레스 연구를 이끌어왔던 논의 가운데 하나인, “genos”와 “eidos”의 쓰임에 논의도 바로 그런 연구 전통에 잇닿아 있다. 이 논의는 요즘 일단락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나오는, 게노스와 에이도스에 의한 분류는 그의 생물학 연구에서는 별 가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생물학 연구에서는 문제의 두 개념이 논리학에서처럼 “유”와 “종”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이며, 그렇기 때문에 생물 분류와 무관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문제의 두 개념들이 등장하는 구절들을 문헌학적인 방법을 써서 분석해 보면, 이런 일반적인 의견은 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생물학에서 eidos는 개별자들을 포함하는 종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절대적으로 쓰인다. genos의 경우는 그 쓰임이 좀 더 복잡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물학에서 내세우는 생물의 형태론적 구분과 관련해서 쓰일 때는 언제나 “유”를 뜻한다. 그런 점에서 genos와 eidos는 본질적으로 생물 분류에 쓰인 개념들이다. 이런 사실은 곧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그의 생물학 연구에서 유용한 도구로서 쓰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다.

【주요어】 게노스, 에이도스, 형태론, 분류

1. 머릿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관련 저술들은 “도구”(organon)라고 불린다. 이 이름은 물론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아니라 기원후 6세기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자들이 붙인 것으로 보이지만,¹⁾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학 분야의 저술들을 쓰면서 세운 뜻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흔히 학문을 이론적인 것, 실천적인 것, 창작에 관한 것으로 분류하는데,²⁾ 논리학은 그 가

1) W. K. C. Guthrie 1983 (11981), *A History of Greek Philosophy*, Vol 6, Cambridge, 135쪽을 참고하라.

2) *Top.* VI 6, 145a 15 ff.; *Met.* VI 1, 1025b 25 ff. 이 논문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을 다음과

운데 어디에도 끼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서 논리학과 관련된 연구들은 그 나름의 어떤 독립된 대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학문 연구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 학문 연구에 필요한 도구들을 탐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서 다루는 것은 학문의 도구, *organon*이라고 보아 크게 틀리지 않는다.

논리학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한 가지 물음에 부닥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학 관련 저술들에서 하는 일이 학문의 도구에 대한 연구라면, 이 연구에서 갈무리한 도구는 실제 학문 연구에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광범위한 연구에서 자기가 논리학적인 저술들에게 가다듬은 도구들을 실제로 쓰고 있는가, 쓰고 있다면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것은 물론 논리학의 쓰임에 대한 물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물음을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주변을 에도는, 주변적인 물음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구의 본질은 쓰임에 있다. 이 점을 아리스토텔레스 자신도 그의 저술 곳곳에서 설새 없이 강조한다.³⁾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하나의 도구라면, 그것의 학문적 쓰임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본질적인 문제를 비껴가는 일이 된다. 이 점을 머리 속에 두고 보면, 지금껏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논리학의 실제 쓰임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음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적 연구들은 그의 실제 학문 연구에서 정말 유용한 도구 구실을 하는가? 오랫동안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에서 감론을박의 와중에 놓여 있던 이런 물음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새롭게 빛을 받기 시작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 관련 저술들에 대한 연구이다. 지난 2000여년의 세월 동안 거의 잊혀지다시피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적인 저술들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르네상스를 맞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근본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그의 생물학 연구에서 논리학의 연구 성과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여기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연구 가운데 하나는 W. Kullmann의 연구이다. 그는 1974년 나온 *Wissenschaft und Methode*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An. post.*에 나오는 논증 이론이 그의 생물학적 연구에서 어떻게 쓰

같이 출어 쓴다: *An. post.* (=Analytica posteriora); *Cat.* (=Categoriae); *De gen. an.* (=De generatione animalium); *De part. an.* (=De partibus animalium); *Hist. an.* (=Historia animalium); *Met.* (=Metaphysica); *Top.* (=Topik).

3) *De gen. an.* IV 1, 766a 6, a 23; *De part. an.* I 1, 642a 11, I 5, 645b 14.

이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출발점으로 삼아 생물학적인 저술들을 분석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적 연구가 논증 이론의 중심 사상, 주어진 현상(hoti)을 그 원인과 근거(diōti)를 통해 설명하려는 의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득력있게 보여주었다.⁴⁾ Kullmann의 연구를 통해 그동안 오랜 논란의 대상이었던 물음, 곧 도대체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과 논증이론이 학문적인 방법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에 뒤따른 연구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 저술에 소개된 여러 가지 방법들, 정의, 분할의 방법 등이 생물학적 연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밝히는 데 몰두하고 있다.⁵⁾

Kullmann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그의 생물학 관련 저술들과 함께 묶어 다루긴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Kullmann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낳은 경우도 있다. 지난 30년 넘는 시간 동안 열띤 논의된, “genos”와 “eidos” 개념의 쓰임새에 대한 연구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이 두 개념은 말할 나위 없이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중심 개념이다. 그것들은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여러 이론들, 곧 술어 이론, 정의 이론, 분할 이론과 논증 이론에서 그 주춧돌 구실을 한다. 그리고 그때 eidos와 genos는, 그 번역어 species와 genus, Art와 Gattung, espèce와 genre가 그렇듯이, 어떤 분류의 단위를 가리킨다. 그런 뜻에서 우리말에서도 그것들을 보통 “종”과 “유”로 옮긴다. 지난 세대 몇몇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자들은, 논리적인 저술들에서 통용되는 eidos와 genos의 이런 쓰임과 그것이 지시하는 분류 체계가 실제 생물학적 연구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밝히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이 연구들은 본디 생물학적인 뜻을 갖는 두 논리적 개념들이 실제 생물학에서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한 연구였고,⁶⁾ 크게 보면 아리스토텔

4) W. Kullmann 1974, *Wissenschaft und Methode*, Berlin-New York, 204-220과 300-341쪽을 참고하라.

5) 다음 논문집에 실린 논문들을 참고하라. A. Gotthelf (ed.) 1985, *Aristotle on Nature and Living Things*, Pittsburgh and Bristol; A. Gotthelf and J. Lennox (ed.) 1987, *Philosophical issues in Aristotle's biology*, Cambridge; D. Devereux et P. Pellegrin (ed.) 1990, *Biologie, Logique et Métaphysique chez Aristote*, Paris; W. Kullmann und S. Föllinger (Hrsg.) 1997, *Aristotelische Biologie. Intentionen, Methoden, Ergebnisse* (Philosophie der Antike Bd. 6), Stuttgart; H.-Ch. Günther und A. Rengakos (Hrsg.) 1997, *Beträge zur antiken Philosophie* (Festschrift für Wolfgang Kullmann), Stuttgart.

6) eidos와 genos 두 개념은 그 말뚝리를 더듬어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개념들이다. eidos는 본디 일상 언어에서 사물의 길보기, 꼴, 모양을 가리킨다. 생명체의 생김새와 형태가 곧 eidos이다. 한편 이 개념은 생김새가 같은 생명체들의 무리를 가리키기도 한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사람으로서 생김새가 같은데, 이렇게 생김새가 같은 개별자들이 속하는 무리, 곧 사람

레스 철학의 두 분야, 논리학과 생물학의 통일성 여부를 가름하는 연구였다. 그런데 이 연구가 얻어낸 결과는 아주 뜻밖의 것이었다. 이 연구 결과는 우리가 이 글에서 다루는 문제와 직접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세기 후반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의 이정표 구실을 한 연구들 가운데 하나로 Balme의 논문 'GENOS and EIDOS in Aristotle's Biology'를 들 수 있다.⁷⁾ 이 논문에서 Balme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적 저술에서 *genos*와 *eidos* 두 개념이 유(*genus*)와 종(*species*)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쓰임이 그의 생물학적인 저술들 속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는지를 다뤘다. 그런데 Balme이 이 연구에서 얻어낸 결과는 부정적이다. 일부 생물학적인 저술들, 주로 생물학의 방법론이 논의되는 부분들에서는, 논리학적인 저술들에서 그렇듯이, 문제의 두 개념 *genos*와 *eidos*가 각각 유와 종의 뜻으로 쓰이지만, 생물학적인 연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저술들, 이를 테면 *Hist. an.*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Balme의 결론이었다. Balme에 따르면 *genos*는 가장 일반적인 생물 집단에서부터 우리가 “종”이라고 부르는 집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생물 집단을 가리키고, 그에 반해 *eidos*는 아주 드물게 쓰일 뿐만 아니라 *genos*와 구별되는 어떤 독립된 뜻도 갖지 않는다. *genos*와 *eidos*의 차이는, Balme에 따르면, 그것들이 생물학적인 분류 체계에서 서로 다른 등급의 생물 집단을 가리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원적인 뜻의 차이일 따름이다. 곧 *genos*는 어떤 혈족 관계를 가리킬 때 쓰이고, *eidos*는 생물체의 모양이나 형태를 가리킬 때 쓰인다는 것이다.⁸⁾

Balme의 이러한 연구는 뒤따른 P. Pellegrin의 연구 *Aristotle's Classification of Animals*에서 새롭게 방향을 틀어 발전해 나갔다.⁹⁾ Pellegrin도 Balme과 마찬가지로

을 일컬어 또한 *eidos*라고 한다. 한편 *genos*라는 개념은 요즘 한창 유행하는 “gen”, “gen-technic” 등의 용어에서 잘 드러나듯이, 생명체의 “생겨남”(genesis)와 그 말뿌리가 같다. 우리말에 가족, 씨족, 동족, 종족 등 여러 단계의 피붙이를 가리키는 말에 “족”이 붙는데, *genos*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개념들의 생물학적 성격에 관해서는 Le Blond 1970 (11939), *Logique et méthode chez Aristote*, Paris, 72쪽을 참고하라.

7) D. Balme 1962, 'GENOS and EIDOS in Aristotle's Biology', *Classical Quarterly* NS XII, 81-98.

8) Balme 1962, 87: "genos means a 'kind' at any level from the most abstract group to the immediately visible type. *eidos* is far less commonly used, and represents no group that *genos* does not also represent. If they differ in meaning, the difference is not that of higher and lower rungs on the same ladder. They belong to different ladders, and the original difference sometimes shows through, *genos* being a statement about kinship and *eidos* a statement about shape or form."

9) P. Pellegrin 1986, *Aristotle's Classification of Animals. Biology and the Conceptual Unity of the*

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적인 저술들 가운데서 *genos*와 *eidos*가 유와 종의 뜻으로 쓰인다는 데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Balme이 두 개념의 차이를 어원적인 데서 찾으려고 한 반면, Pellegrin은 그 차이를 두 개념의 상대적인 쓰임에서 찾는다. Pellegrin에 따르면 생물학적인 저술들은 물론 어떤 저술에서나 아리스토텔레스는 *eidos*와 *genos*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 곧 어떤 생물 집단이건 그것보다 범위가 더 큰 집단과 비교될 때는 *eidos*라고 일컬어지고, 더 작은 집단과 비교될 때는 *genos*라고 불린다는 말이다.¹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종”보다 높은 단계의 생물 집단도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의 생물 집단과 비교해서 *eidos*라고 불릴 수 있고, “종”에 해당하는 생물 집단도 그보다 낮은 단계의 집단과 비교해서는 *genos*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genos*와 *eidos*가 이처럼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인다면, 그 두 개념들을 써서 생물체들을 분류한다는 것은 물론 아무런 뜻도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유동적인 개념들”을 써서는 어떤 고정된 분류 체계에도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¹¹⁾ 그런 점에서 Pellegrin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적 연구 가운데는 어떠한 생물 분류 체계도 들어설 여지가 없다”고 단정한다.¹²⁾

Balme과 Pellegrin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래, *eidos*나 *genos*의 절대적인 쓰임을 내세우는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eidos*가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인다는 Pellegrin의 주장은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자들 사이에서 정설로 통한다.¹³⁾ 하지만 그 발언력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Balme과 Pellegrin의 주장에는 적지 않은 헛점들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헛점들을 밝혀 내고, Balme이나 Pellegrin의 주장에 맞서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한다. 그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논리학적인 저술 속에서 가다듬은 *genos*와 *eidos*의 절대적인 쓰임은 그의 생물학적인 저술들 속에서도 널리 쓰인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genos*와 *eidos*의 쓰임이 지시하는 생물 분류 체계는 아

Aristotelian Corpus, Berkeley-Los Angeles-London; 같은 저자 1985, 'Aristotle: A Zoology without Species', in: A. Gotthelf (ed.) 1985, 103쪽 아래를 보라.

10) Pellegrin 1986, 94쪽 아래를 보라.

11) Pellegrin 1986, 82쪽: “*genos* and *eidos* are notions that wander too much to supply a stable basis for an animal taxonomy”.

12) Pellegrin 1987, 'Logical difference and biological difference: the unity of Aristotle's thought', in: A. Gotthelf and J. Lennox (ed.) 1987, 313쪽.

13) G.E.R. Lloyd 1990, 'Aristotle's zoology and his metaphysics; The status quaestionis. A critical reviews of some recent theories', in: D. Devereux et P. Pellegrin (ed) 1990, 8쪽; A.L. Peck 1993 (11965), *Aristotle. History of Animals*, I-III, lxiv f.도 함께 참고하라.

리스토텔레스 생물학 연구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사실이다. *genos*와 *eidos*가 쓰이는 모든 곳을 다룰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한 출전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도구적 성격을 밝히는 데 큰 뜻이 있을 것이다.

2.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서 게노스와 에이도스의 쓰임

두 말할 것 없이 *genos*와 *eidos* 개념은 종차(*diaphora*), 속성(*idia*), 부수성(*ta symbebēkota*) 등의 개념들과 더불어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핵심을 이룬다.¹⁴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의 쓰임에 대한 분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대한 연구가 떠맡아야 할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아리스토텔레스의 *Cat.*의 주석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포르피리오스는 이 점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인식해서, 위의 개념들에 대해 짚막하기 하지만 꽤 유용한 글을 쓴 적이 있다.¹⁵ 물론 우리는 포르피리오스처럼 그 개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논리학 이론들, 술어 이론, 정의 이론, 분할 이론, 논증 이론 가운데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논의할 처지에 있지는 않다. 우리 논의의 초점은, *genos*와 *eidos*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술들과 생물학 저술들에서 똑같이 “유”와 “중”의 뜻으로 쓰이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만 두 개의 논리학적 저술, *Cat.*과 *Top.*를 중심으로 삼아 그 두 개념의 논리적 쓰임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데 만족해야 할 것이다.

*Cat.*에서 *eidos*와 *genos*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그 글의 첫부분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뒷날 전통 논리학의 기본이 되는 구분, 곧 주어와 술어의 구분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주어 구실만을 하고 다른 것에 술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말”, “이 사람” 같은 개별자들이다. 이것들은 가장 으뜸가는 뜻에서 있는 것, 곧 우시아(*ousia*)이다.¹⁶ 다른 것들은 이런 개별자들에 대한 술어가 되는데, 이런 술어들에는 크게 나누어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그 개별자들에 우연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kata symbebēkos, per accidens*) 속하는 것들을 집어 말하는 술어들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자들의 본질을 지시하는 술어들이다. 예

14) D. Ross는 *eidos* 개념을 “the central point of his logic”이라고 부른다. D. Ross 1953 (11923), Aristotle, London, 24쪽을 참고하라.

15) Porphyrius 1906, ‘Einleitung in die Kategorien’, in: *Aristoteles. Philosophische Schriften in sechs Bänden*. Bd. 1, übers. v. E. Rolfes, Hamburg.

16) *Cat.* 5, 2a 11 아래와 *Met.* VII 3, 1028b 36 아래를 참고하라.

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키가 170cm이다”는 진술은 앞의 것에 해당하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는 뒤의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자의 본질을, 곧 이야기거리가 되는 개별자가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술어를 다시 둘로 구분한다. 그 하나는 지금 예로 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이고, 다른 하나는 “소크라테스는 생명체다”이다. “소크라테스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우리는 그를 “사람”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생명체”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람”과 “생명체”는 모두 소크라테스가 “무엇인지”를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말한 “사람”과 “생명체”를 각각 *eidos*와 *genos*의 예로 드는데, 그의 범주 구분에 따르면 그것들은 모두 둘째 우시아(*deutera ousia*)로서 첫째 우시아(*prōte ousia*)인 개별자들과 함께 우시아의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사람”과 “생명체”, 다시 말해서 *eidos*와 *genos*는 한 가지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주어가 되는 것에 존재론적인 우위성을 부여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genos*보다 *eidos*에 상대적인 우위를 부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우시아들과 다른 것들의 관계는 *eidos*와 *genos*의 관계와 똑같다. 왜냐하면 *eidos*는 *genos*의 밑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곧 *genos*들은 *eidos*들에 대해 술어가 되지만, *eidos*들은 *genos*들에 대해 술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eidos*가 *genos*보다 더 우시아이다.”¹⁷⁾ 이 인용문이나 같은 주장을 담고 있는 여러 전거들을 통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Cat.*에서 *eidos*와 *genos*가 각각 “종”과 “유”의 뜻으로 쓰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idos*와 *genos*가 각각 “종”과 “유”의 뜻으로 쓰인다는 사실은 *Top.*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은 *genos*의 쓰임을 주로 다룬 *Top.*의 4권과 6권인데,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주로 정의와 관련해서 *genos* 개념을 논의한다. 그에 따르면 정의는 두 가지 요소, 곧 *genos*와 차이들(*diaphorai*)로 이루어진다.¹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런 정의의 대표적인 사례는 사람에 대한 정의 “사람은 두 발 가진 생물이다.”이다. 하지만 사실 정의의 내용, 구성요소, 절차는 이 예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이 문제에 대한 복잡한 논의는 접어두고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론의 커다란 윤곽만을 그려 보면, 대강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짜임새에 대해 말할 때, 곧잘 자신의 재료-형태 이론(*Hylemorphismus*)을 비유로 든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제작물이건 자연물이건 두 가지 요소, 곧 재료와 형태로 이루어진다.

17) *Cat.* 5, 2b 17-22.

18) *Top.* I 8, 103b 5; VII 5, 154a 27-8.

예를 들어 조각상은 재료, 이를 태면 대리석이 하나 둘 형태들을 얻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아무 형태도 없었던 대리석 덩어리는 조각 과정에서 세분화되어 마침내 조각가가 의도한 완성된 형태에 이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과정도 이런 제작과정과 비슷한 과정으로 본다. “사람”을 정의한다고 해보자.¹⁹⁾ 그러면 먼저 사람이 속한 *genos*로 “생물”을 취한다. 그런 다음 이 *genos*와 차이, 예를 들어 “두 발 가진”을 함께 취해 더 낮은 단계의 *genos*, 곧 “두 발 가진 생물”에 이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사람에 대한 세분화된 정의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새도 “두 발 가진 생물”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을 새와 구별해 주는 차이 “날개 없는”을 더 취해서 “두 발 가진 생물”에 덧붙인다. 그 결과 “두 발을 갖고 날개가 없는 생물”이라는 사람의 정의에 도달한다.²⁰⁾ 정의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정의의 두 요소인 *genos*와 차이는 각각 제작 과정에서 쓰이는 두 요소인 재료와 형태에 해당한다. 곧 재료가 형태에 의해 점차 세분화되어 하나의 제작물이 생겨나듯이, *genos*가 차이들에 의해 점차 세분화되어 하나의 정의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때 정의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로 *eidos*이다. *eidos*는, 말하자면 *genos*를 차이들을 써서 나뉘어 나가는 과정의 마지막 종착점이 되는 셈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뜻에서 “모든 종적인 차이는 *genos*와 함께 *eidos*를 만들어 낸다.”²¹⁾고 말한다. 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eidos*는 *genos*와 차이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둘이 없이는 *eidos*도 없다. “*genos*와 차이가 없으면 *eidos*도 없어 지는데,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eidos*보다 (논리적으로) 더 앞선다.”²²⁾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genos*와 차이가 *eidos*보다 논리적으로 선행함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런 발언들에 담긴 *genos*와 *eidos*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몇 가지 다른 진술들서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예를 들어 *Top.* IV 1, 120b 19에는 “*genos*는 같은 *eidos*에 속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술어가 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의 내용은 위에서 살펴본 *Cat.* 5, 2b 17-22의 말과 그 뜻이 다르지 않다. 둘 다 *genos*가 *eidos*보다 외연이 더 넓다는 사실을 지적한 말이다. 121a 12 아래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또한 이렇게 말한다: “분명 *eidos*들은 *genos*들에 참여하지만,

19) *Met.* VII 12, 1037b 27 아래를 보라. *An. post.* II 13도 함께 참고하라.

20) “사람”의 종차의 보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An. post.* II 5, 91b 39과 *Top.* V 3, 132a 1 아래를 보라.

21) *Top.* VI 6, 143b 8-9.

22) *Top.* VI 4, 141b 28-9.

genos들은 eidos들에 참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eidos는 genos의 로고스를 받아들이지만, genos는 eidos의 로고스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생물”에 대한 진술은 “사람”에게도 적용되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말은, 그 내포를 비교하면 eidos가 genos보다 더 크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삼아 둘의 포섭 관계를 따지면, 당연히 eidos가 genos에 포섭된다: “... 모든 genos에는 여러 eidos들이 속해 있다...”²³⁾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eidos와 genos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103a 10 아래 구절에 나온다: “수는 여럿이지만 eidos의 측면에서 볼 때 차이가 나지 않는 것들은 eidos에 있어 똑같다. 예를 들어 사람과 사람, 말과 말이 그렇다. 같은 eidos에 속하는 것들은 그 eidos에 있어 똑같기 때문이다. 말과 사람이 그렇듯이, 같은 genos에 속하는 것들은 genos에 있어서 똑같다.”²⁴⁾ 이 구절은 생물을 분류할 때 eidos와 genos 개념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예시하는 것이어서 아주 흥미롭다. 그에 따르면 형태가 똑같은 여러 개별자들이 모여 하나의 eidos를 이룬다. 사람들과 말들은 각각 “사람”과 “말”이라는 eidos를 이룬다. 이러한 eidos들이 다시 모여 하나의 genos를 이룬다. 사람과 말이 함께 “생물”이라는 genos를 이룬다는 말이다. 103a 10아래의 구절은 이런 점에서, 논리학에서 genos와 eidos가 각각 유와 종의 뜻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그 두 개념이 생물의 분류 체계와 무관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3.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에서 게노스와 에이도스의 쓰임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관련 글들에서 genos와 eidos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그의 생물학 저술들에 눈을 돌려 보기로 하자. 여기서는 먼저 그 두 저술군(群)에서 genos와 eidos의 쓰임이 얼마만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그 불일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겠다.

3.1. *Hist. an.* I과 *De part. an.* I에서 genos와 eidos의 쓰임

23) *Top.* IV 3, 123a 30. IV 6, 127a 23-4를 참고하라.

24) *Top.* I 7, 103a 10-14. 이 구절에서 eidos는 두 가지 뜻으로 쓰였다: 형태(form)와 종(species). “수는 여럿이지만 eidos의 측면에서 볼 때 차이가 나지 않는 것들은 eidos에 있어 똑같다”는 말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수는 여럿이지만 형태를 두고 볼 때 차이가 나지 않는 것들은 종적으로 똑같다.” 앞의 주 6을 참고하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방대한 분량의 생물학 저술들 가운데 *Hist. an.*의 첫째 권과 *De part. an.*의 첫째 권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생물학 연구의 기본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기 때문이다. *genos*와 *eidos* 개념이 생물학 전체에 걸쳐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도 바로 *Hist. an.* I과 *De part. an.* I에 나와 있다. *Hist. an.* I의 첫머리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I 1, 486a 15 아래):

생물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몸의) 부분들이 모두 서로 똑같고, 어떤 것들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부분들의 형태(*eidos*)가 똑같은데, 이를 떼면 한 사람의 귀와 눈은 다른 사람의 귀와 눈과 똑같고, 살은 살과, 뼈는 뼈와 똑같다. 말이나 *eidos*에서 서로 똑같다고 우리가 말하는 다른 생물들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같은데), 그 까닭은 몸 전체가 서로 같다면, 각 부분들도 서로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몸의 형태는) 같지만, 과도와 결핍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의 *genos*는 똑같다. *genos*란 이를 떼면 새와 물고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들 하나하나 *genos*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물고기나 새들의 *eidos*는 여럿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에 속해 있는 부분들은 거의 모두가, 대립된 성질들 (예를 들어 색깔과 형태)에 의해서 서로 구별되는 것 말고도, 어떤 것들은 같은 부분들을 더 많이, 어떤 것들은 더 적게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많고 적음, 크고 작음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과도와 결핍에 의해서 서로 구별되는 것이다. (...)

어떤 생물들은 *eidos*에서 볼 때 부분들이 같지도 않고, 과도와 결핍의 측면에서 같지도 않고, (다만) 비례적으로 같을 뿐이다. 이를 떼면 (사람의) 뼈는 물고기 가지와, 발톱은 발굽과, 손은 가재손에 해당하고, 지느러미는 날개에 해당한다. 새의 날개에 해당하는 것은 물고기의 지느러미다. 각 생물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같거나 다르다.

여기 옮긴 글에는 오늘날 “형태론”(Morphologie)이라고 부르는 생물학 이론의 근본 생각이 앞질러 표현되어 있다.²⁵⁾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형태적인 특징들에 따라 생물을 분류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세 가지 분류 방식을 든다. 먼저, 몸 전체나 몸의 부분들의 형태가 똑같은 생물들은 하나의 *eidos*에 속한다. 이를 떼면 개별적인 사람들도나 개별적인 말들은 각각 사람이나 말이라는 *eidos*에 속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나 이 말 저 말은 몸의 형태가 같기 때문이다. 다음, 몸의 형태가 닮긴 했지만, 크고 작음에 차이가 있는 생물들은 하나의 *genos*를 이룬다. 예를 들어 까마귀와 까치는 겉보기가 비슷하지만, 날개의 크기나 수, 부리의

25) Kullmann 1974, 320쪽 아래; 같은 저자 1998, *Aristoteles und die moderne Wissenschaft* (Philosophie der Antike Bd. 5), Stuttgart, 173쪽을 보라.

크기 따위에서 차이가 난다. 이런 생물들은 함께 하나의 *eidos*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genos*, 곧 새라는 *genos*에 속한다. 이런 크기의 작고 크거나 수의 많고 적음의 차이를 아리스토텔레스는 과도와 결핍(*hyperochè kai elleipsis*)이라는 말로 뭉뚱그려 표현하는데, 말하자면 하나의 *genos*에는 과도와 결핍의 차이에 따라 서로 구별되는 여러 *eidos*가 속한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eidos*에도, *genos*에도 속하지 않는 생물들은 서로 비례적으로 비교될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사람의 뼈는 물고기의 가시에 해당한다. 사람: 뼈 = 물고기: 가시의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뜻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eidos*에도 *genos*에도 속하지 않는 생물들은 이런 비례적 또는 유비적 관계 속에서 서로 비교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자면 유비적 관계 속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생물들은 서로 형태적 유사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유사성을 가질 뿐이다.

eidos, *genos*, *analogia*에 따른 생물 분류 방식은 아리스토텔레스 생물학의 방법론을 간추려 소개한 *De part. an.* I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거기서 든 예를 보면, 소크라테스와 코리스크스는 생김새가 서로 같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eidos*의 구성원이다.²⁶⁾ 많고 적음, 크고 작음 따위의 양적인 차이에 의해 서로 구별되는 생물체들은 하나의 *genos*에 포섭된다.²⁷⁾ 예를 들어 한 부류의 새는 날개가 길고, 다른 한 부류의 새는 날개가 적은데, 이 두 부류의 새는 하나의 *genos*를 이룬다. 단순히 비례적으로만 몸의 부분들이 같은 생물체들은 서로 다른 *genos*에 속한다. 예를 들어 새의 날개와 물고기의 지느러미는 생김새가 같지도 않고, 양적인 차이를 두고 비교할 수도 없어 오로지 기능의 유사성만을 갖고 있을 뿐이고 다른 몸의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genos*에 속한다.

이제 *Hist. an.* I과 *De part. an.* I에 나오는 *genos*와 *eidos*의 쓰임을 논리학 저술들에서 소개된 두 개념의 쓰임과 비교해 보자. *eidos*의 쓰임을 두고 보면, 우리는 별다른 차이를 찾을 수 없다. *eidos*는 두 저술군에서 모두 형태 또는 생김새가 같은 개별적 생물체들을 포함하는 무리를 일컫는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eidos*를 “species”, “Art”, “espèce”, “종”이라고 옮길 수 있다. 이런 *eidos*들은 여럿이 모여 하나의 *genos*를 이룬다. *genos*는 곧 생물체를 분류할 때 *eidos*보다 상위의 분류 단위가 된다. 참고로 이와 관련된 *Hist. an.* I 1, 486a 22 아래 구절에 대한 Peck의 번역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In other cases, they are, it is true, identical, but they differ in respect of excess and defect: this applies to those whose genus

26) *De part. an.* I 3, 644a 24 아래를 보라.

27) *De part. an.* I 3, 644a 18 아래.

is the same; and by genus I mean, for example, bird and fish: each of theses exhibits difference with respect to genus, and of course there are numerous species both of fishes and of birds.” *De part.* I 4, 644b 1 아래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말을 하는데, 그에 따르면 “서로 크게 동떨어지지 않은 eidos 들”(eide ... mē polu diestōta, 644b 4)은 하나의 genos에 속한다. 이 경우 genos는, “종”을 뜻하는 eidos에 대비해서, “genus”, “Gattung”, “genre”, “유”라고 옮길 수 있다.

하지만 논리학적 저술들과 생물학적 저술들에서 genos의 쓰임새를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차이가 눈에 띈다. 앞서 보았듯이, 논리학 저술에서는 genos 개념이 생물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말과 사람을 함께 뭉뚱그려 가리키기도 한 반면, *Hist. an.* I나 *De part. an.* I에서는 똑같은 낱말이 새나 물고기를 가리킬 때 쓰인다. 뒤의 두 권의 생물학 저술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genos”라는 말로써 가리키는 것은 이른바 최고류(megista genē), 곧 새, 물고기, 고래, 유각류, 갑각류, 두족류, 곤충이다.²⁸⁾ 또한 생물학적인 저술들을 좀더 자세히 읽어보면, genos가 생물 전체나 생물체들을 분류하는 최고의 단위뿐만 아니라 그보다 낮은 단계의 집단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genos의 쓰임과 관련해서 눈에 두드러진 것은 다음 두 가지 쓰임이다. 첫째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예를 들어 *De part. an.* I 3, 643b 4 아래에서 eidos에 해당하는 생물들로 사람, 말, 소, 돼지, 염소, 양을 든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하나의 “종”으로 치는 생물들이다. 그런데 *Hist. an.* I 1, 488a 31 아래에서는 여기서 나열한 생물들을 genos라고 일컫는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런 “종”보다 낮은 단계의 생물 집단을 가리킬 때도 genos란 낱말이 쓰인다는 점이다. “소들 중 어떤 genos”(*Hist. an.* II 15, 506a 9), “개들 중 여러 genos들”(VI 19, 574a 16), “사자들 중 두 genos”(IX 44, 629b 33)과 같은 표현들이 그에 해당한다. 달리 말해서 genos 개념은 최고류에서 시작해서 종에 이르는 모든 생물 집단은 물론 종에 해당하는 생물 집단의 하위 집단에 대해서도 쓰인다.²⁹⁾ 이런 genos의 다양한 쓰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genos와 eidos의 용례들은 먼저, genos가 가장 일반적인 생물 집단부터 우리가 “종”이라는 부르는 집단까지 모든 단계의 생물 집단을 가리킨다는 Balme의 확인이 옳은 것임을 증거해 준다. 또한 genos가 이렇듯 여

28) megista genē에 대해서는 A.L. Peck 1993 (11965), *Aristotle History of Animals*, I-III, lxxvi-vii를 참고하라.

29)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Balme 1962, 85쪽과 Pellegrin 1986, 77쪽을 참고하라.

러 맥락에서 쓰인다면, “... 모든 *genos*에는 여러 *eidos*들이 속해 있다...”(*Top. IV* 3, 123a 30)는 주장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genos*가 “종”보다 높은 단계의 생물 집단을 가리킬 경우에는 물론 하나의 *genos*에 여러 *eidos*가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genos*가 종이나 아종 또는 변종을 가리킬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genos*와 *eidos*를 각각 유와 종의 뜻으로 쓰면서 그 개념들을 통해 생물체들을 분류한다는 생각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생물학 사이에 매울 수 없는 커다란 공백이 놓여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³⁰⁾ 그런 점에서 *genos*와 *eidos*의 용법에 대한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전체의 근본을 뒤흔드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3.2. *genos*의 여러 가지 쓰임

*genos*는 아주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얼핏보아서는 그 쓰임에서 어떤 질서를 찾는 것도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선부른 속단을 하기에 앞서 먼저 *genos*의 이런 다의적 쓰임의 이면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genos* 개념의 쓰임을 다룬 *Met.* 5권의 한 구절을 읽어보자 (*V* 28, 1024a 29 아래).

*genos*라는 말은, (1) 똑같은 *eidos*를 가진 생물들의 생성이 계속 이어질 때 쓰는데, 예를 들어 “사람들의 *genos*가 있는 동안”이라는 말은 “그들의 생성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이라는 뜻이다. 그 말은 또한 (2) 어떤 사람들을 처음으로 낳아 있게 한 것(한 종족의 시조—글썩이)와 관계해서 쓰인다. 헬라스 사람들이나 이오니아 사람들은 이런 뜻에서 *genos*라고 일컬어지는데, 앞의 사람들은 헬렌을, 뒤의 사람들은 이온을 처음 낳은 자로 해서 생겨난 자들이다... 또한 (3) 어떤 뜻에서는 “평면”은 평면 도형들의 *genos*라고 부르고, “입방체”는 (여러 부류의) 입방체들의 *genos*라고 부르는데, 그 까닭은 그 각각의 형태들은 이러저러한 평면이거나 이러저러한 입방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여러 차이들의 밑에 놓인 것이다. 또 (4) 어떤 뜻으로는 로고스의 첫째 구성 요소로서, “무엇” 안에서 언급되는 것 (= 어떤 사물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로고스 안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것—글썩이)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바로 *genos*인 바, 그것의 차이들

30) Pellegrin은, 생물학적 저술들은 물론 논리학적인 저술들에서도 *genos*와 *eidos*가 상대적인 뜻으로 쓰인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주장에 의거해서 논리학과 생물학의 통일성을 옹호하려고 한다. Pellegrin 1987, 313-338.

이 바로 여러 성질이 된다. 이렇듯 *genos*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쓰는데, (1) 똑같은 *eidos*의 계속적인 생성을 가리켜 쓰기도 하고, (2) 생김새가 같은 자들의 무리를 낳은 시조를 따라 쓰기도 한다. 또한 (3)재료와 같은 뜻으로 쓰기도 하는데, 차이와 성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밑바탕인데,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재료라고 부른다.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아주 무질서해 보이는 *genos*의 쓰임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의문이 어느 정도는 풀린다. 생물 전체를 가리켜 *genos*라고 부른다면, 그 이유는 “생물”이라는 개념이 개별적인 종이 각각 무엇인지 정의하는 “로고스의 첫째 요소로서” 언급되는 데 있다. 이런 쓰임은, 위에서 분류한 바에 따르면, *genos*의 네 번째 쓰임에 해당한다. 종이 *genos*라고 일컬어진다면, 이는 첫째 뜻에서 그렇다. 이를테면 “사람의 *genos*”란 표현을 쓴다면, 그 이유는, Pellegrin이 주장하듯이, “사람”이 비교 대상에 따라 어떤 때는 “*eidos*”로, 또 어떤 때는 “*genos*”로 불릴 수 있다는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종에 속하는 생물체들의 생성(*genesis*)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De gen. an.* II 1, 732a 1 아래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런 뜻으로 *diogenos aei anthrōpon kai zōion esti kai phytōn* (“그러므로 사람과 동물과 식물의 *genos*는 영원하다”)라고 말한다.³¹⁾ “종”의 하위 집단이 *genos*라고 불리는 경우는 어떤가? 어떤 상황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 이것이 유전되어 세대를 거쳐 유전적으로 전수될 경우 이런 유전 형질을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조의 이름이나 그가 살았던 곳의 이름을 따서 그 생물 집단을 무리지어 하나의 *genos*라고 부를 수 있는데,³²⁾ 이 경우 *genos*는 (사람의 경우) 인종이나 민족을, (동물의 경우) 아종이나 변종을 뜻한다. 이때 *genos*는 물론 *Met.*의 분류에서 두 번째 쓰임에 해당하며, “소들 중 어떤 *genos*”(*Hist. an.* II 15, 506 a 9), “개들 중 여러 *genos*들”(VI 19, 574 a 16), “사자들 중 두 *genos*”(IX 44, 629 b 33)과 같은 표현들에서 *genos*는 그런 뜻에서 쓰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면 *genos*가 “유”의 뜻으로 쓰일 때는 언제인가? 그런 경우는 이미 위에서 거론했지만, 그 뜻을 분명히 하는 뜻에서 *De part. an.* I의 관련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644b 8 아래).

일반적으로 (몸의) 부분들이나 몸 전체의 형태들이 닮은 꼴을 하고 있으면, 이런 (닮은) 형태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genos*가 규정된다. 이를 테면 새들의 *genos*, 물고기들의 *genos*가 이렇고, 연체류나 갑각류도 *genos*이다. 이런 것들의 부분들은 비례적인 유사성(예를 들어 사람의 뼈는 물고기의 가시에 해당한다)에 의해서가 아니라, 몸의

31) *Hist. an.* VI 31, 579b 5; IX 4, 611a 11을 참고하라.

32) *De gen. an.* II 7, 746a 29 아래와 *Hist. an.* VIII 28, 606b 20 아래를 참고하라.

성질들, 이를 태면 큼과 작음, 부드러움과 딱딱함, 미끄러움과 거침이나 그런 다른 성질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더 많고 더 적음에 의해서 서로 구별된다.

앞서 옮긴, *genos*의 쓰임에 대한 *Met.*의 설명이 생물학적인 문맥을 훨씬 넘어선 것임에 비해, 지금 옮긴 구절에서는 *genos*가 생물학적인 형태 분류를 위한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몸 형태의 유사성과 차이성에 따라 생물체들이 *genos*로 분류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새들은 모두 하나의 *genos*를 이룬다. 모든 새들은 몸의 형태가 비슷하고, 이런 비슷함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연체류, 갑각류 등과 구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나아가 새들은 모두 하나의 *genos*에 속하지만, “몸의 성질들, 이를 태면 큼과 작음, 부드러움과 딱딱함, 미끄러움과 거침이나 그런 다른 성질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더 많고 더 적음에 의해서 서로 구별된다.” 쉽게 말해서 독수리와 참새는 날개의 크기, 부리의 크기, 날개의 촘촘함 정도 등에 의해 구별된다. 물론 이러한 구별, 곧 “과도와 결핍”에 의한 구별은 더 이상 형태론적인 구별이 불가능한, 개별적인 새들로 이루어진 “종”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매과(科)에 속하는 새들은 부분들의 크기나 다른 여러 양적인 차이에 따라 서로 구별되지만 몸 전체나 부분들의 생김새가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과(科)의 새들과 구별해서 하나의 *genos*로 분류할 수 있다.³³⁾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나 그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최고류와 종 사이의 여러 중간 단계들을 오늘날처럼 저마다 그 나름의 이름을 붙여 잘게 나눌 형편에 있지는 않았다.³⁴⁾ 그의 시대는 그 정도로 생물계를 체계화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류”에서 “종” 사이의 중간 집단을 일반적인 개념을 써서 “*genos*”라고 부를 따름이다. 하지만 어쨌든 이때 쓰인 *genos*는 생물을 그 **형태에 따라** 나눌 때 쓰인 개념이고, 그런 점에서 생물학적 분류의 개념이다. 이런 뜻의 *genos*는, 종의 연속적인 생성을 뜻하는 *genos*나 공통의 조상을 가진 생물 집단을 가리킬 때 쓰인 *genos*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형태론적 분류 개념으로서 *genos*는 그 아래에 여러 종들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유”라고 불릴 수 있지만, 종의 연속적인 생성이나 공통의 조상을 가진 생물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쓰

33) *genos*가 형태론적 분류 개념으로서, 최고류와 종 사이에 놓인 여러 단계의 중간 집단에 대해 쓰일 수 있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Hist. an.* IV 7, 531b 20 아래와 VIII 3, 593b 8 아래를 참고하라.

34) 그는 그의 저술 여러 곳에서 생김새가 비슷한 여러 생물들을 함께 부를 이름이 없다고 말한다. *Hist. an.* I 6, 490b 15-19, 490b 31 아래 등.

인 *genos*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Balme과 Pellegrin의 눈에 *genos* 개념이 생물학적인 분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이들이 *genos*의 이런 다양한 쓰임을 충분히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모든 *genos*에는 여러 *eidos*들이 속해 있다..."라는 말은, *genos* 개념이 형태론적인 분류 개념으로 쓰일 경우 그런 쓰임에 잘 들어맞는다.

3.3. *eidos*의 절대적 쓰임

*genos*가 여러 단계의 생물 집단을 가리키는 반면, *eidos*는 생물학적인 저술들에서 오로지 "종"의 뜻으로 쓰일 뿐이다. 이런 쓰임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는 앞에서 *Top.* I 7, 103a 10 아래 구절과 *Hist. an.* I 1, 486a 15 아래 구절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Balme이나 Pellegrin은 *eidos*에 대한 이런 진술이 생물학 전체에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런 주장을 입증해 주는 증거로 그들이 즐겨 대는 구절들은 몇 되지 않지만, 이 구절들의 발언 내용은 지난 2-30년 동안 열린 논란거리였기 때문에, 이제 그 구절들을 잘 읽어 보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eidos*를 "종"과 다른 뜻으로 쓴다는 주장의 옳고 그름을 비판적으로 되새겨 보아야겠다.

먼저 *Hist. an.* I 6, 490b 15-19를 살펴보자.

나머지 생물들을 두고 보면 *genos*들이 크지 않다. 그 이유는 하나의 *eidos*는 여러 *eidos*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것은, 예를 들어 사람이 그렇듯이, 단순해서 아무런 종적인 차이가 없고, 또 어떤 것들은 (종적인 차이들이) 있지만 (그에 속하는) *eidos*들은 이름이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앞선 구절 490b 7 아래에서 생물체들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로써 "최고류"를 나누면서, 그 예로 먼저 새, 물고기, 고래를 든다. 이것들은 모두 피 있는 생물들이다. 한편 피 없는 생물들도 있는데, 여기에는 갑각류, 연체류, 곤충이 속한다. 위에 옮긴 구절은 바로 이런 "최고류"에 따른 분류에 이어진다.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새끼를 낳는 네 발 짐승, 알을 낳는 네 발 짐승, 뱀, 사람을 염두에 두고서, 이것들의 *genos*들은 크지 않다고 말한다. 그 이유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의 *eidos*는 여러 *eidos*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든다: 새끼를 낳는 네 발 짐승, 알을 낳는 네 발 짐승, 뱀에는 여러 *eidos*들이 있긴 하지만, 각각의 *eidos*는 그 아래 또다시 여러 *eidos*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가 크지

않아서, 그 eidos들 하나하나를 큰 genos로 볼 수 없다는 말이다. 이어지는 설명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더 자세하게, 위에서 언급한 생물들에게는 왜 큰 genos가 속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한다. 그에 따르면, 사람은 그 자체로서 단순해서 종적으로 더 이상 구분될 수 없고, 다른 짐승들(새끼를 낳는 네 발 짐승, 알을 낳는 네 발 짐승, 뱀)은 종적으로 더 구분될 수 있긴 하지만 그 구분된 무리들은 이름이 없다. 여기서 “이름이 없다”(anonyma)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자들 사이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 그 뜻은 지금의 논의 맥락에서 두 가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첫째, 알을 낳는 네 발 짐승이나 뱀은 여러 eidos들로 구분되지만 이 eidos들은 **고유한 이름이 없다**. 둘째, 새끼를 낳는 네 발 짐승에 속하는 eidos들에는 “사자”, “고양이”, “호랑이” 따위의 고유한 이름이 있지만 그것들을 함께 묶어 부를 **공통의 이름이 없다**. 결국 네 발 가진 짐승, 뱀, 사람 등 가운데, 사람은 어차피 여러 eidos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큰 genos가 되지 못하고, 다른 짐승들은 더 낮은 단계로 분류할 수 있긴 하지만 그 하위 단계의 집단에 고유한 이름이 없거나 공통의 이름이 없어 큰 genos로 무리지어 부르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보면, 사실 490b 15-19의 구절은, eidos가 생물학적 분류 단위로서 “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반박하는 자료로 내세울만한 것이 못된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eidos를 요즘 우리가 말하는 “종”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것처럼 아무 관계도 없는 구절을 논증 자료로 끌어 들이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예를 들어 그 구절에 대한 두 영어 번역을 보자.

Of the other animals the Genera are not extensive. For in them one species does not comprehend many species; but in one case, as man, the species is simple, admitting of no differentiation, while other cases admit of differentiation, but the forms lack particular designations. (Thompson)³⁵

Among the remaining animals we find no large groups; we do not find one kind comprising many other kinds: either a kind will be simple, showing no differentiation, for example, man; or if it does show differentiation, the kinds which it comprises are unnamed. (Peck)

490b 15-19의 후반부에서는 두 부류의 생물체가 비교된다. 그리스 원문은 alla

35) D' Archy W. Thompson 1912, *Historia animalium*, in: The works of Aristotle translated into English, vol. IV, Oxford의 관련 구절 번역을 보라.

to men estin ..., ta d' echei ... 인데, 르네상스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번역자들은 의례 여기서 두 종류의 eidos가 비교 대상으로 논의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1) 종적으로 더 이상 나뉠 수 없는 eidos와 2) 종적으로 더 나뉘어 그 아래 다시 여러 eidos를 포함하는 eidos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의 두 번역은 이런 구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읽기의 근본적인 잘못은, 두 번째 문장 “ou gar periechei polla eidē hen eidos”(“그 이유는 하나의 eidos는 여러 eidos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은 삽입문이고, 문제의 구절 alla to men estin ..., ta d' echei ...에서 to men과 ta d'는 이 삽입문의 주어 eidos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앞 문장의 주어 genē에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데 있다. to men과 ta d'를 genē에 걸리는 것으로 보면 해석에 아무 어려움도 없다. 이런 방식으로 전체 구절을 다시 풀이하면, 그 뜻을 이렇다: “나머지 생물들을 두고 보면 genos들이 크지 않다. (그 이유는 하나의 eidos는 여러 eidos를 안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것은, 예를 들어 사람이 그렇듯이, 단순해서 아무런 종적인 차이가 없고, 또 어떤 것들은 (종적인 차이들이) 있지만 (그에 속하는) eidos들이 (고유한 이름을 갖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여러 eidos들을 함께 묶는 공통된 이름이 없다는 뜻에서) 이름이 없다.”³⁶⁾ 여기 어디에도 eidos의 종적인 단순성을 부정하는 말은 담겨있지 않다.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의 삽입문은 eidos가 단순한 종을 가리킴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³⁷⁾

다른 구절, *Hist. an* I 6, 490b 31 - 491a 6을 또 읽어 보자.

네 발을 가지고 새끼를 낳는 genos에는 여러 eidos가 속하지만, (이 eidos들은) 이름이 없어서, 그 하나하나는, 예를 들어 사람이 그렇듯이, 사자, 사슴, 말, 개라고 불리고 다른 것들 역시 그런 방식으로 불리는데, 이른바 lophoura라고 불리는 생물들, 예를 들어 말, 당나귀, 노새, 기노스, [이노스], 시리아에서 나귀라고 불리는 짐승들과 관련해서만 그것들에 공통된 하나의 genos가 있기 때문이다. 이 시리아에서 나귀라고 불리는 짐승들은 모양이 비슷해서 그런 이름을 갖고 있지만, 같은 eidos는 아닌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서로 짝을 지어 새끼를 낳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 발을 가지고 새끼를 낳는 genos에 속하는 여러 eidos들은) 따로따로 취해서 그 각각의 본성을 탐구할 수밖에 없다.

이 구절에서는 새끼를 낳는 네 발 짐승들을 분류하는 문제를 다룬다. 주장의

36) Kullmann은 글쓴이의 이런 해석을 받아들인다. Kullmann 1998, 168쪽 아래를 참고하라.

37) Pellegrin (1986, 101)은 이 삽입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in a given context, an eidos is not divided into eide.” 이런 주장은 아무 근거도 없다.

내용을 잘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새끼를 낳는 네 발 짐승들의 *genos*에는 여러 *eidos*들이 포함되어 있다; 2) 하지만 이 *eidos*들을 함께 묶어 부를 공통의 이름이 없어 저마다 그 고유한 종의 이름으로 불릴 뿐이다; 3) 공통의 이름이 있는 경우는 이른바 *lophoura*라고 불리는 짐승들뿐인데, 여기에는 말, 당나귀, 노새 등이 속하고, 이것들은 함께 하나의 *genos*를 이룬다; 4) 이 *genos*에 포함되는 짐승 가운데는 “시리아 나귀”가 있는데, 모양이 나뉘어 닮아서 그런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 나뉘어 같은 종이 아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나귀는 그 생식 능력에서 종적인 배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³⁸⁾ 5) 새끼를 낳는 네 발 짐승들의 *genos*에 속하는 여러 *eidos*들은 하나의 공통된 *genos*로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종 하나하나를 따로 취해서 그 각각의 본성을 탐구할 수밖에 없다.

Balme은 이 구절을 근거로 *eidos*가 종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이름이 없다”는 표현이 주목한다. Balme에 따르면 이 표현은, 한편으로는 개별적인 *eidos*들(사자, 사슴 등)을 포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끼를 낳는 네 발 짐승에 포섭되는 단위 집단, 곧 최고류와 종 사이의 중간 집단을 가리킨다. 아리스토텔레스가 *eidos*들에 이름이 없다고 말할 때, 그가 이름없는 에이도스(*eidē anōnyma*)로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요즘 말하는 “고양이과”(Cat)에 해당하는 무리라고 Balme은 말한다. 그런 뜻에서 여러 *eidos*를 포함하는 무리도 *eidos*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이 Balme의 주장이다.³⁹⁾ 하지만 원문을 잘 읽어 보면, 이런 Balme의 이런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eidos*들이 이름이 없다고 말은, Schneider와 Thompson이 잘 지적했듯이,⁴⁰⁾ 여러 종들을 함께 묶어 부를 공통의 이름, 곧 유적인 명칭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Pellegrin의 해석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⁴¹⁾ 그의 원문 번역은 이렇다.

38) 종에 내재된 생식 능력의 배타성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술 여러 곳에서 “사람이 사람을 낳는다”는 말로 표현한다 (*Met.* VII 7, 1032a 25; XII 3, 1070a 28; *De part. an.* I 1, 640a 25; *De gen. an.* II 1, 735a 20 f. 등의 구절을 참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종 개념이 어떤 유전론적인 견해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는 *De gen. an.* III과 IV의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Pellegrin (1985, 108)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종 개념이 아무런 유전론적인 토대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변종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De gen. an.* II 7, 746a 29-32; II 8, 747b 30-35; *Hist. an.* VIII 28, 606b 22-23)를 부풀려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D.H. Cho 2002, *Ousia und Eidos in der Metaphysik und Biologie des Aristoteles* (Philosophie der Antike, Bd. 19), Stuttgart(근간)의 “Eidos als Spezies und Synonymität der Zeugung”을 참고하라.

39) Balme 1962, 91쪽.

40) Gottlob Schneider 1811, *Aristotelis De Animalibus Historiae*, Lib. X, Lipsiae와 Thompson 1912의 관련 구절 주석을 보라.

The genus of animals that are simultaneously quadruped and viviparous has many eidē, but they are anonymous. Each of them, so to speak, is called by the name of an individual, as: man, lion, elephant, horse, dog, and so on ...

Pellegrin은 이런 원문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운다: “Notice also that in this passage Aristotle ranks man among the viviparous quadrupes, while in other passages he distinguishes him from them. That proves — and obviously it is fundamental for my study — to what degree Aristotle constructs orderings of animal families for the immediate occasion.”

정말 아리스토텔레스는 490b 31-491a 6에서, Pellegrin이 주장하듯이, 새끼를 낳는 네 발 짐승에 포함된 eidos의 한 사례로 삼고 있는가? 그는 정말 사람을 어떤 때는 다른 모든 짐승들과 구별된 하나의 eidos로 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새끼를 낳는 네 발 짐승의 무리에 포함시키기도 하는가? 만일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어떤 고정된 분류 체계, 곧 eidos와 genos에 따른 생물 분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선부른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원문을 잘 읽어보자.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네 발을 가지고 새끼를 낳는 genos에는 여러 eidos가 속하지만, 이름이 없어서, 그 하나하나는, 예를 들어 사람이 그렇듯이, 사자, 사슴, 말, 개라고 불리고...”(글쓴이의 밑줄) Peck의 번역도 같은 뜻이다: “There are many kinds included in the group of viviparous quadrupeds; but they are unnamed. Each constituent, we may say, has been named individually, as man has, e.g., lion, deer, horse, dog, and...”(글쓴이의 밑줄) 여기서 사람은, Pellegrin이 주장하듯이, 새끼를 낳는 네 발 짐승의 genos에 속하는 여러 eidos들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것이 아니라, 독립된 eidos의 한 본보기로 거론되었을 뿐이다. 글쓴이가 확인한 바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생물학적 저술 어디에서도 사람을 새끼를 낳는 네 발 짐승의 무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Pellegrin의 주장, 아리스토텔레스가 상황에 따라 생물들을 달리 분류한다는 주장은 결국, 원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으로 밝혀진다.

eidos 개념의 쓰임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세 번째 구절은 *Hist. an.* II 15, 505b 25-32이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들이 크게 나누어 피 있는 것과 피 없는 것으로 나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서, 생물체의 내부 기관들을 탐구

41) Pellegrin 1986, 101쪽을 보라.

하려면 먼저 피 있는 것들부터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본문의 우리말 번역과 Pellegrin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내부 기관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피 있는 생물들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야한다. 왜냐하면 바로 이 점에서 가장 큰 *genos*들은 나머지 다른 생물들과 갈라지기 때문이다. 곧 어떤 것들은 피가 있고, 어떤 것들은 피가 없다. 앞의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사람, 새끼를 낳는 네 발 짐승, 알을 낳는 네 발 짐승, 새, 물고기, 고래가 있고, 또한 뱀이나 악어처럼, *genos*를 이루지 않고 개체들을 포괄하는 단순한 *eidos*를 이루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짐승도 그에 해당한다.

We must now go on to describe the arrangement of the internal parts, and first of all those blooded animals, because this is the feature in which the greatest *gene* differ from the rest of the animals: they are blooded, whereas the others are bloodless. The former [greatest *genos*] includes man, those of the quadrupeds that are viviparous, as well as those of the quadrupeds that are oviparous: birds, fish, cetaceans, and any other anonymous group there may be; [anonymous] because the *eidos* is not a *genos* but an [*eidos*] that is simple in relation to the individuals — for example, the serpent and the crocodile.

Pellegrin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적인 저술들에서 *genos*와 *eidos*가 여러 단계에서 쓰인다는 주장의 근거로 이 구절을 든다. 거기서 사람, 새끼를 낳는 네 발 짐승, 알을 낳는 네 발 짐승 등이 피 있는 생물이라는 가장 큰 *genos*에 속하는 *eidos*들의 사례로 나열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이런 해석은 본문의 내용과 아주 동떨어진 것이다. 원문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 새끼를 낳는 네 발 짐승, 알을 낳는 네 발 짐승 등은 피 있는 생물이라는 최고류의 *eidos*들로서 언급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 자체가 최고류로서, 곧 피 있는 생물에 속하는 최고류들로서 언급되어 있다.⁴²⁾ 새, 물고기, 고래도 마찬가지로 피 있는 생물에 속하는 최고류들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 저술 어디에서도 새나 물고기가 *eidos*로 불리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 본문 마지막 부분의 *eidos*의 쓰임은 어떤가?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앞서 늘어놓은 것들 — 새끼를 낳는 네 발 짐승, 새, 물고기 등 — 말고도 피 없는 생물에 속하는 다른 이름 없는 짐승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짐승(짐승의 무리)는 이미 알려진 *genos*에 속하지 않고 어떤 독립된 단순한 *eidos*를 이루기 때문에 이름이 없다고 말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뱀과 악어를 그런 단순한

42) 사람은 다른 어떤 유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최고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idos의 사례로 든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진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만일 eidos가 언제나 “종”을 뜻한다면, 어떻게 뱀과 악어가 eidos의 사례가 될 수 있는가?

물론 뱀이나 악어는 하나의 종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Hist. an.* V 33, 558a 14 아래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악어를 두 종으로 구분한다. 그 하나는 강에 살고, 다른 하나는 땅에 산다. 또한 *Hist. an.* II 17, 508a 8나 III 1, 511a 14 아래에서는 뱀을 *genos*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genos*는 물론 그 아래 여러 종의 뱀들을 포함하는 “유”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뱀과 악어가 종이 아니라 여러 종을 포함한 유(*genos*)라면, 어떻게 505b 25-32에서는 그런 뱀과 악어가 eidos의 사례가 될 수 있는가? 지난 두 세기 동안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자들을 괴롭힌 이런 물음에 대한 한 가지 대답으로, 거기서 eidos는 “종”의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뜻으로 쓰였다, 다시 말해서 더 상위의 동물 집단에 속하는 하위 집단을 가리켜 쓰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많은 연구자들은 그런 주장을 내세워 어려움을 피하려고 했다. 예를 들어 Thompson은 이렇게 말한다: “... the serpent as *genos* contains many eidos, but is also, as here, as single eidos in the great *genos*, tetrapoda, *ōitoua pholidōta*.”⁴³⁾ 이런 해석은 얼른 보면 그럴듯해 보인다. 또 이런 해석이 맞다면, 본문은 eidos와 *genos*가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인다는 주장의 강력한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 저술들에 나오는 분류를 두고 볼 때, Thompson이나 그와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해석은 근거가 아주 약하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생물학 저술 어디에서도 뱀을 “비늘이 있고, 알을 낳는 네 발 짐승”(tetrapoda, *ōitoua pholidōta*)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eidos 쓰임에 대해 다른 어떤 해결안이 있을 수 있는가? 이제껏 이루어진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물음에 대한 만족할만한 대답에는 어느 누구도 이르지 못했다. 그 결과 문제의 부분은 전승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 현재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⁴⁴⁾ 어쨌든 우리가 다루는 본문 505b 25-32이, Thompson이나 Pellegrin이 주장하듯이, eidos 개념의 상대적인 쓰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 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한 표현 *anōnymon ... dia to mē einai genos all' haploun to eidos epi tōn kath'*

43) 관련 구절에 대한 Thompson 1912의 주석을 보라.

44) Balme 1962, 92쪽 아래를 참고하라.

hekaston(“genos를 이루지 않고 개체들을 포괄하는 단순한 eidos를 이루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에서 밝히 드러난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eidos 개념을 genos 개념과 대비시켜 쓰고 있다. 만일 두 개념이 맥락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일 수 있다면, 이런 대비는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to eidos epi tōn kath’ hekaston라는 표현이다. 여기서 ta kath’ hekaston은 개별자들을 가리킨다. 전체 표현to eidos epi tōn kath’ hekaston은 그래서 “개별자들을 포괄하는 eidos”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이렇게 쓰인 eidos는 “종”을 뜻할 수밖에 없다.⁴⁵⁾

3.4 생물 분류의 실제 사례들

genos와 eidos가 유와 종의 뜻으로 쓰이지 않고 맥락에 따라 상대적인 뜻으로 쓰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두 개념들과 관련된 어떤 생물학적 분류 체계도 인정하려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Pellegrin은 그 두 개념은 어떤 “불변적인 등급의 일반성”(a constant degree of generality)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생물 분류의 토대도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 연구 계획 안에는 어떤 동물 분류도 들어설 여지가 없다”고 단정한다.⁴⁶⁾ 이런 주장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에서 genos와 eidos가 Pellegrin이나 다른 연구자들이 주장하듯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제 생물 분류의 측면에 눈을 돌려 보기로 하자. 이 문제를 해명하는 데 필요한 치밀한 원문 연구는 우리의 논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일이므로 여기서는 그저 새와 관련해서 genos와 eidos가 쓰인 사례들을 몇몇 골라 간단히 이야기해 보자.

1) *Hist. an.* VIII 3, 592b 6 f.

수리(gyps)에는 두 eidos가 있는데, 하나는 몸이 작고 흰색이고, 다른 하나는 몸이 더 크고 잿빛이다.

2) *Hist. an.* VIII 3, 592b 17-21

45) 더욱 자세한 분석은 D.H. Cho 2002의 관련 부분을 보라. Kullmann 1998, 170쪽을 참고하라.

46) Pellegrin은 같은 뜻으로 이렇게도 말한다: “But neither of the two terms, genos or eidos, indicates a constant degree of generality on which a taxonomic construction could be based.” (1986, 106).

박새(aigithalos)에는 세 eide가 있는데, 그 가운데 스피지테스(spizites)가 가장 크고(그 크기가 푸른머리되새만 하다), 다른 것은 산에 살기 때문에 산박새(aigithalos oreinos)라고 불리는데, 꼬리가 길다. 셋째 것은 나머지 둘과 비슷하지만, 크기에 차이가 있다. 몸집이 가장 작다.

3) *Hist. an.* VIII 3, 593b 8-11

물총새(halkyon)의 genos는 물가에 산다. 두 eide가 있는데, 하나는 노래를 하고 갈대 위에 앉는 반면, 다른 하나는 노래를 안한다. 이 둘째 것은 몸이 더 크지만, 둘 다 등이 검푸른색이다.

4) *Hist. an.* IX 19, 617a 18-22

지빠귀(kichlê)에는 세 eide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익소보로스(iksoboros)인데, 이것은 겨우살이 가지와 송진밖에는 먹지 않는다. 크기는 어치새만하다. 둘째 것은 트리카스(trichas)인데, 날카로운 소리를 내고 크기는 검은새(kottlyphost)만하다. 사람들이 일리아스(ilias)라고 부르는 것은 셋 가운데 가장 작고 색깔이 덜 알록달록하다.

5) *Hist. an.* IX 24, 617b 16-19

갈가마귀(koloios)의 eide는 셋인데, 그 중 하나는 코라키아스(korakias)이다. 이것은 크기가 까마귀만하고 부리가 붉은 색이다. 다른 하나는 늑대(lykos)라고 불린다. 또 다른 것은 몸이 작는데, “익살꾼”이라고 불린다. 리디아와 프리기아에는 또 다른 genos의 갈가마귀가 있다.

6) *De part. an.* I 4, 644a 29 아래.

eidos에서 나뉘지 않는 것이 우시아이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eidos에서 나뉘지 않는 것들을 대상으로 삼아 연구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일 것이다. 곧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하듯이, 새를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 genos는 여러 eidos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나뉘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 타조나 두루미나 그와 같은 것을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Balme은 여기 옮긴 구절들에서 쓰인 eidos라는 낱말을 모두 “form”으로 옮겼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주장,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제 생물학 연구에서는 eidos가 그 어원적인 뜻을 따라 “불품”, “형태”라는 뜻으로 쓰일 뿐이라는 주장을 관철시킨다. 하지만 이에 맞서 지적해야 할 사실이 있다. 위에서 옮긴 여러 구절에서 eidos의 쓰임은 아리스토텔레스 생물학의 이론적 개관이 담긴 *De part. an.* I과 *Hist. an.* I에서 소개된 eidos의 쓰임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첫째, 거기서 똑같은 상위의 집단(예를 들어 박새, 물총새, 지빠귀 등)에 속하는 여러 eidos들은,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나름의 이름이 있고 서로 형태와 크기의 차이에 따라 구별된다. 이것은 같은 genos에 속하는 eidos들은

“과도와 결핍”의 차이에 따라 구별된다는 *De part. an. I*의 이론과 일치하는데, 이렇게 서로 구별되는 *eidos*들은 “종”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둘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아래 여러 *eidos*들을 포함하는 무리를 가리킬 때 절대로 또다시 *eidos*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물론 옳긴 구절들만으로 이런 단정을 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글쓴이가 확인한 바로는 거기 언급된 새들, 수리, 박새, 물총새, 지빠귀, 갈가마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광범위한 생물학 저술 어디에서도 *eidos*라고 불리지 않는다. 거꾸로, 마지막 구절에서 *eidos*의 사례로 예시된 타조나 두루미가 하위의 종으로 나뉠 수 있다고 말하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다. 이는 다른 동물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eidos*는 여러 *eidos*를 포함하지 않는다”(Hist. an I 6, 490b 16)는 주장의 반증 사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만일 그 아래 여러 *eidos*들을 포함하는 생물체가 어떤 일반적인 이름으로 불릴 경우, 그 이름은 셋째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genos*이다.

결국 위에 옳긴 구절들만 보아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머리 속에 그리고 있는 생물 분류 체계의 대체적인 윤곽이 쉽게 떠오른다. 형태적인 특징을 따라 구분할 때 동물의 왕국의 맨 꼭대기에는 “최고류”가 있고, 맨 아래에는 “종”이 있다. 최고류와 종 사이에는 여러 단계의 중간 등급이 있을 수 있다. “*lopoura*”나 “물총새”가 그런 중간 등급에 해당한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중간 등급을 가리키는 공통의 이름이 없음을 여러 곳에서 지적한다. 또한 어떤 것이 *eidos*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사실을 곧,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생물학적 분류 체계도 내세우지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그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 분류가 오늘날처럼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줄 뿐이다. 2300여년 전 생물계에 대한 체계적 연구에 처음 손을 든 한 개인에게 어떻게 오늘날 통용되는 체계화된 분류 체계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린네와 큐비에가 “옛날 아리스토텔레스에 비하면 어린 학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다아윈의 지적인 헛말이 아니다.⁴⁷⁾ 적어도 그들이 세운 생물학적 분류 체계의 터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분류 체계는 *eidos*와 *genos* 개념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4. 맺음말

47) G.R.G. Mure 1975 (¹1932), *Aristotle*, Connecticut, 124쪽에서 재인용.

이제까지 논의를 간추려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술들에서 *genos*와 *eidos*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전형적인 사례를 우리는 *Cat.*와 *Top.*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genos*는 여러 단계의 보편자를 가리킨다. 이를 태면 “우시아”, “질”, “양”과 같은 가장 높은 단계의 보편적 범주들에서 시작해서 그 아래 포섭되는 다른 여러 단계의 보편자들, 곧 한편으로는 이런 저런 범주들에 포섭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보편자들을 자기 아래 포섭하는 보편자들이 모두 *genos*라고 불린다. 그에 반해 *eidos*는 가장 낮은 단계의 보편자를 가리킨다. *eidos*는 그 아래 개별적인 것들만을 포섭할 뿐, 더 이상 보편적인 것으로 나눌 수 없다. 이런 뜻의 *genos*와 *eidos*의 전형적인 사례는 각각 “생물”과 “사람”이다. *genos*와 *eidos*를 각각 “genus”와 “species”, “Gattung”과 “Art”, “유”와 “종”으로 옮길 때, 사람들은 바로 그런 쓰임을 고려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관련 저술들에 나타난 *genos*와 *eidos*의 이런 쓰임이나 그것이 지시하는 분류 방식이 그의 생물학 연구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는가라는 문제는 지난 20세기 후반기에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자들 사이에서 열띤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논란은, 그동안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둘러싼 보다 일반적인 논의, 곧 학문의 도구로서 연구된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이 실제 학문 연구에서 유용한 도구 구실을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논의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뜻을 갖는다.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 결과는 대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주장으로 수렴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적 저술에서는 *genos*와 *eidos*가 — 논리학적 저술들에서와 달리 — 유와 종의 뜻으로 쓰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genos*와 *eidos* 개념에 따른 생물 분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런 주장은 *genos*와 *eidos*의 용례에 대한 Balme와 Pellegrin의 연구에 의해 강력하게 뒷받침되었다. 이 두 연구는 무엇보다도 *genos*라는 개념은 종은 물론 종보다 낮은 단계의 생물 집단도 가리킬 수 있다는 사실을 논거로 삼아 *genos*와 *eidos*가 각각 유와 종을 뜻한다는 종래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에는 어떤 분류 체계도 들어설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런 주장은 요즘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많은 이론적인 허점을 안고 있다. 우리는 Balme과 Pellegrin의 주장에 맞서 세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논리학적 저술에서와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저술에서 *eidos* 개념은 절대적인 의미로 “종”을 가리킨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낮은 단계의 보편자, 개별자들을 포섭하는 보편자가 곧 *eidos*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De part. an.*과

Hist. an. 여러 곳에서 *eidos*를 이런 뜻으로 분명하게 정의한다. 그리고 *eidos* 개념에 대한 이런 정의에 상반된 사례는 그의 생물학 저술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eidos*가 “form”을 뜻할 뿐이라는 Balme의 주장이나, 그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genos*에 포함되는 집단을 가리킬 뿐이라는 Pellegrin의 주장은 *eidos*가 쓰인 몇몇 구절들에 대한 받아들이기 힘든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생물학적 저술들 가운데서도 *genos* 개념은 “유”의 뜻으로 쓰인다. 물론 이 개념은 “종”에 해당하는 집단뿐만 아니라 “종” 아래의 집단에 대해서도 쓰인다. 하지만 이때 *genos*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형태론적” 분류의 맥락에서 사용한 *genos*와 전혀 다른 뜻을 갖는다. 형태 분류의 맥락에서 볼 때 *genos*는 일반적으로, 형태가 비슷하지만 “과도와 결핍”에 의해 서로 구분될 수 있는 생명체들을 모두 포함하는 최고류(새, 물고기, 곤충 등)에서 시작해서 형태론적으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중간 단계의 집단을 가리킨다. 이때 “*genos*”는, “종”을 뜻하는 *eidos*와 대비해서 “유”로 옮길 수 있다.

셋째, *genos*와 *eidos*의 이런 쓰임은 생물학적 분류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적 저술에서 분할의 방법이나 정의의 방법 등을 소개하면서, 사물들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한다. 생물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형태론적 분류를 강조한다. 물론 이 분류는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생물 분류처럼 체계적이지도 않고 개념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지도 않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 저술들은 근본적인 점에서 이미 체계적인 생물 분류의 기본틀을 마련해 갖고 있다. 이 점은 바로 *genos*와 *eidos*의 쓰임에서 드러난다. 그런 뜻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 연구 계획 안에는 어떤 동물 분류도 들어설 여지가 없다”는 Pellegrin의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모든 것을 아울러 생각해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제시된 *genos*와 *eidos*에 의한 분류는 그의 생물학에서 유용한 분류 방법으로 받아들여져 쓰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한 확인을,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도구적 성격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